

증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가격 줄상향

대신증권, 삼성전 27만원·하닉 145만원 제시 메모리 값 상승에 영업이익 급증 전망

증권가가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7만원, 14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5만원,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메모리반도체 가격 전망 상황 분을 반영했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171조원에서 201조원으로 상향한다"며 "올해 1분기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의 1위를 탈환하고 연간으로는 200조원대 영업이익의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부문별로는 범용 반도체에서 디램(DRAM)과 낸드(NAND) 평균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54%, 8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HBM4는 초당 11.7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구현할 수 있어 시장이 빠른 제품(11.7Gbps)과 그보다 느린 제품(10.6Gbps)으로 나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속도 우위를 앞세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류 연구원은 "수익성 측면에서 2017-2018

년의 슈퍼사이클레어의 고점(디램 70%, 낸드 53% 상승)을 넘는 수익성이 기대된다"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세트 사업에서의 수익성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의 성장이 강한 전사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노이즈가 존재하지만 경쟁사들의 수율과 고객사 수요를 감안했을 때 선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최근 스마트폰과 PC 출하

량 전망이 하향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이클과 다른 점은 공급사와 고객사들 재고가제한적이며 단기간 내 공급사들이 생산능력을 확보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라며 "과거와 가격 상승으로 고객사 또한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가계약(LTA)이 과거와 달리 높은 가시성과 결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현보 기자 bo@viva100.com



증권가에서 최근 보험주가 실적 개선 없이 기대감만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각사 제공

보험업종 주가, 오버 슈팅? NH증권 "실적개선 확인돼야"

최근 보험주 급등에 대해 실적 전망이나 자본 정책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선반영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대감보다는 펀더멘털 점검이 우선이라는 게 증권가의 지적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최근 보험주 상승이 업황 개선이나 실적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코스피 보험업 지수는 지난 20일 하루 만에 7.9% 상승했으며, 배당을 지급하는 주요 보험사보다 배당 재계 기대가 남아 있는 보험사들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보험업 펀더멘털은 당분간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의 예실차 부진과 신계약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최근 실적을 발표한 주요 보험사들 역시 2026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했으며, 일부 자본 투자 효과나 감익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경합 이익의 의미 있는 개선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정책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면 주주환원 정책의 명확성이 높아졌다 고 보기 어렵고, 상위 보험사들 역시 일회성 이익에 대한 환원 기대는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평가다.

배당을 재개하지 못한 보험사들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이라는 선결과제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최근 주가 급등 배경으로는 외부 기대 요인이 꼽힌다.

증시 강세와 풍부한 유동성, 상법 개정 추진에 따른 자사주 소각 가능성, 일부 보험사 대주주의 지분 승계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자사주 신규 매입 없이 기존 보유 물량을 소각하는 방식은 주주환원 확대보다 기보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 대주주 승계 이슈 역시 기업가치 제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증권주, 실적개선 지속 기대감

강세장 주도하는 핵심 업종 부상 수익성 다각화·주주환원 확대 전망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는 가운데 증권주가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 정책 모멘텀까지 맞물리면서 증권주가 일제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KRX 증권지수는 연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며 반도체 중심이던 기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새로운 테마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 대장주로 불리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한국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주들은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영증권, 대신증권, 부국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 역시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한 직후 다수 증권주가 동시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증권주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증시 호황에 따른 실적 기대다. 증권사는 거래대금 증가가 곧 수수료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위험자산 선호 확대 국면에서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

타난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의 모험자본 확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수익 다각화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정책 기대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다. 최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대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가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친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증권업종에 대한 증권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최근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코스피 6000을 넘어 7000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겹치면서 증권사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총 영업이익은 8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올해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다.

증시 강세 흐름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가 이어지는 한 증권주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 시리즈 순자산액 1조원 돌파!

한국투자 TDF알아서 ETF포커스

한국투자TDF알아서ETF 펀드 인기몰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시리즈의 순자산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안정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제공

EQT, 더존비즈온 잔여지분 공개매수 착수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 후 상폐 방침

지난해 더존비즈온을 인수한 글로벌 사모펀드(PD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 전량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매수 이후 상폐 방침이다.

EQT는 지난해 11월 더존비즈온 경영권 주식 37.6%(자기주식 제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등 정부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이와 동시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는 더존비즈온 주주는 종료일까지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NH투자증권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HTS, MTS)으로 청약 신청하면 된다.

EQT는 "상장폐지를 하는 것이 회사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최근 정부승인 절차가 마무리돼 법적으로 더존비즈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 따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매수 가격은 지난해 경영권 매각 당시와 동일한 주당 12만원이다. 해당 가격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가로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차익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액주주에게도 대주주와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QT는 공개매수 완료 후 법적 절차를 추가로 밟아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현보 기자 bo@viva100.com

일년 100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학교를 샅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